

6월에 다시 새긴 이한열 열사

최병수 작가 여수 백야도 작업공간서 1987년 기억 “환경·사회에 대한 변혁의 몸부림은 여전히 진행형”

6월, 하늘은 더없이 파란데 최병수 작가에게는 한없는 아픔이 기억이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한열 열사를 추모해 ‘한열이를 살려내라!’라는 대형 걸개그림을 내걸어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냈었기에 더 그렇다.

먹구름과 비바람이 지나간 다음날인 지난 8일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작업실에서 만난 최병수 작가는 여전히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었다. 실내 작업보다는 바깥 작업이 대부분인 현장 작가다.

기후, 환경을 포함해 사회문제에 집중해 온 작가는 자신의 작업 공간 한 칸을 지키고 있는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잊은 적이 없고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6월, 청년 열사는 푸르렀고 작가는 오롯했다.

지금 있는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이한열 열사 30주기, 6월 항쟁 30주기를 맞아 지난 2017년 작가가 제작했다.

역사를 바꾼 장면, 열사의 참혹했던 당시를 기억하며 같은 형상 두 작품을 만들었다. 3m 높이 작품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 내 이한열 동상에 있다. 실물 정도 크기 1m80cm 높이 작품은 작가의 공간인 여수 백야도에 있다.

작가는 “원래는 실내에 전시했다. 일부러 비와 바람, 눈을 맞는다. 부식이 조

금 됐다. 쇠에 대한 느낌이 세월이 갈수록 달라진다. 제작 당시 스케치를 오래 했다. 어떻게 하면 열사의 뜻과 몸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쇠가 소재지만 섬세하게 만들었다. 공간에 세워둔 ‘열사’를 통해 맑은 하늘과 푸른 산, 짙은 바다가 보인다. 슬프지만 매일 들여다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작가는 6월 항쟁 당시 이한열 열사를 그려 8개의 판화작품을 만들었다. 작업실에 판화 원본과 판화, 이한열 열사의 영정 그림이 보관돼 있다. 30년이 됐다.

판화를 내 보이는 작가의 눈에 살짝 맺혔다.

작가는 슬픔을 알기에 희망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촛불혁명을 겪으며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촛불 당시 ‘되진’, ‘하야’ 등을 새긴 작품들을 광화문에 펼쳐 놓았던 때를 회상했다. 열사에 대한 기억과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2005년 여수에 동지를 트기 14년째인 작가는 자신의 공간에 대해 “이곳은 창작의 공간이자 아이디어의 산실”이라면서 “환경과 사회, 변혁에 대한 꿈을 작업을 통해 수놓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백야도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최병수 작가가 지난 8일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자신의 작업공간 한 칸에 있는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가리키며 6월을 다시 기억했다.

“순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은 특혜”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결과

현 시장의 ‘보은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이 특혜로 밝혀지며 담당 공무원 징계와 센터장 채용취소로 결론났다.

지난 7일 감사원은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Ⅳ를 통해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미자격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에 채용된 현 S센터장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내세워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S센터장이 10년 이상 활동한 법무부교정협의회는 국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도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며 “이미 채용확정된 S센터장을 채용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취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A씨와 B팀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S센터장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순천시장에게 요구했다.

B팀장은 교정협의회가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이 단체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순천시에 등록하는 편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했으며, 소관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전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A씨는 교정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등록단체가 아님에도 서류심사 합격의 내용으로 B팀장에게 결재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항공노선 증편·거점공항 승격·국제선 운항 허가 등

여수공항 감편 저지 공동건의문 채택

여수·순천·광양시가 여수공항 김포노선 감편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3개시 시장들은 지난 7일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항공 감편운항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주승용 국회의원, 이용주·정인회 국회의원, 여수시 박용하 상공회의소 회장과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여수시 교원중 교통과 장의 여수공항 현황과 감편운항 동향 설명으로 시작했다.

고 과장은 여수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김포노선 1일 4회, 제주노선 1일 3회를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은 58만9,996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항공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모 결과 테마거리와 경관육교에 각각 125건, 126건을 접수 받았고, 1차 심사서 우수작을 각각 10개씩 선정한 후, 2차로 시민선호도 조사와 내부 행정망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부쳤다.

시민선호도 조사에서는 테마거리 523명이, 경관육교에 596명이 각각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순위는 시민선호도 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평가결과를 각각 50% 합산해 매겼다.

공모 결과 테마거리와 경관육교에 각각 125건, 126건을 접수 받았고, 1차 심사서 우수작을 각각 10개씩 선정한 후, 2차로 시민선호도 조사와 내부 행정망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부쳤다.

시민선호도 조사에서는 테마거리 523명이, 경관육교에 596명이 각각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순위는 시민선호도 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평가결과를 각각 50% 합산해 매겼다.

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자료 설명 후 3개시 시장,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 적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여수공항 항공노선 증편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여수공항의 거점공항 승격 반영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공항과 전라선 KTX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광양만권 발전과 지역인 교통편의를 위해 최소 현행 항공편 운항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도 “여수공항 항공기 감편운항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면서 “3개시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3개시는 이날 중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와 시민사회, 기업체 차원의 대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순천·광양시가 최근 여수공항 김포노선 감편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항공 감편운항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앞두고 해당 부지를 점검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의회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점검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앞두고 해당 부지를 점검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는 제193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10일 심사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번 193회

정례회에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공시지가 41억여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수시는 이번 6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 경관보도육교 명칭 확정

시민 선호도 결과 ‘해비치로·해오름육교’ 선정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및 삼화섬·마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 명칭을 ‘광양 해비치로’와 ‘해오름육교’로 각각 확정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전 시민 선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명칭 각 10개에 대해 상징성, 독창성, 전달성, 연관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공식명칭으로 확정된 광양 해비치로는 해와 해(바다 해)+빛+이의 합성어로 ‘비치’는 해변을 의미한다. 365일 언제나 광양 온 누리에 해가 비치듯 와우공유수면 일대 해안선 9.4km 구간이 늘 빛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삼화섬과 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경관육교의 새로운 이름 해오름육교는 해가 떠오르는 형상으로, 광양시 마스코트인 ‘미래소년-해아’와도 연관성을 높이며 광양

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

이번 명칭 공모는 광양시가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인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경관육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브랜딩을 통한 대국민 사전홍보를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테마거리와 경관육교에 각각 125건, 126건을 접수 받았고, 1차 심사서 우수작을 각각 10개씩 선정한 후, 2차로 시민선호도 조사와 내부 행정망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부쳤다.

시민선호도 조사에서는 테마거리 523명이, 경관육교에 596명이 각각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순위는 시민선호도 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평가결과를 각각 50% 합산해 매겼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구례 치매안심마을 벽화그리기

구례군은 최근 문척면 월평마을에서 문척초등학교 학생들과 치매안심마을 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벽화는 치매파트너 캐릭터인 단비와 치매에 대한 메시지 등을 그림으로

써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척초등학교는 이번 달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보성 드림스타트 복지부장관 기관표창

보성군은 최근 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보성군은 사업운영의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운영, 자원개발 및 연

계, 만족도, 홍보 등 6개 분야 11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철우 군수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간담회

곡성군은 최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의 참여기관 및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근로자의 근무상황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참여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개최됐으며 3개 기관의 대표와 청년 등 8명이 참석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